

—
제1회

문덕수 문학상 시상식

—
일시 2015. 12. 7.(월) 오후 4시

장소 문학의 집 · 서울

—
수상자

시인 신규호

주최 재단법인 심산문학진흥회 | 후원 시문학사·한국시문학아카데미

❖ 재단법인 심산문학진흥회 소개 및 경과보고

1. 설립취지

문학은 삶의 질을 높이고 민족정신을 고취함으로써 국가와 사회발전에 크게 이바지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 나라의 정신문화를 풍요롭게 하려면 무엇보다 문인들의 창작활동을 고취하여야 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평생을 한국문학 발전에 크게 공헌하여 오신 심산(心汕) 문덕수 선생은 우리 문학이 더욱 융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시인, 작가, 평론가 및 문학연구가들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평소에 늘 강조하였다.

이에 우리는 심산 문덕수 선생의 이러한 문학정신을 기리고 실천함으로써 한국문학 발전의 일을 담당하고자, 모든 요건을 갖추어 <재단법인 심산문학진흥회>를 설립한다.

2. 略史

설립허가: 2010년 9월 8일 (서울시 문화예술과)

최초등기: 2010년 9월 20일 (서울 서부지방법원)

출자금액액(3억원에서 5억원으로) 등기 변경: 2015년 5월 8일

고유번호증 교부: 2010년 10월 4일 (마포세무서)

3. 주요사업 (2010-2015)

- (1) 설립이후 현재까지 한국시문학아카데미와 합동으로 세미나 개최(총 16회)
 - 2010.10.22. 「현대 프랑스 시의 흐름과 갈래」 (이가림 인하대 불문과교수)
 - 2012.3.23. 「문학과 건축 그리고 근대의 조건들」 (함성호 시인/건축가)
 - 2012.5.25. 「시와 미술 사이」 (이가림 인하대 불문과 교수)
 - 2012.9.25. 「시극(詩劇)」 (이승하 중앙대 문창과 교수)
 - 2012.11.23. 「영화와 시」 (최만산 군산대 교수)
 - 2013.7.12. 「현대미술사조와 현대시의 흐름」 (김종근 시인/홍대 미술대학원교수)
 - 2013.12.6. 「경쟁 아닌 교환의 음악시 쓰기」 (최건 시인)
 - 2014.9.5. 「예술비평의 객관성과 주관성」 (박철화 중앙대 문창과 교수)
 - 2015.3.6. 「영상화법의 이야기들」 (박경희 KBS 드라마 작가)
 - 2015.9.4. 「한국시의 국어학적 관찰」 (송기중 서울대 교수)

(2) 한국시문학아카데미와 합동으로 『새로운 시론집 II』(시문학사) 발간
(2011.10. 서울문화재단 지원)

(3) 제1회 <문덕수문학상> 시상. 2015년 12월 7일, 수상자: 신규호 시인
(향후 매년 12월 첫째 월요일에 실시 예정)

❖ 식순

사회: 유자효(시인)

- 국기에 대한 경례
- 순국선열 및 작고문인에 대한 묵념
- 개회사 손해일(감사)
- 축사 이건청(한국시인협회 전 회장)
- 문덕수문학상 제정 취지 및 경과보고 김철교(상임이사)
- 심사평 함동선(심사위원장)
- 시상 문덕수(예술원 회원)
- 수상소감 신규호
- 낭송 / 수상자의 시 허 열 「존재의 이유」
최지하 「구름과 놀고 싶다」
고경수·오상희(합송시) 「바람꽃」
- 축하공연 증창
바리톤:정규환 / 테너:임도건 / 피아노 반주:안요셉
- 폐회

❖ 수상소감



감사합니다. 여러 모로 부족한 저를 제1회 '문덕수문학상' 수상자로 선정해 주신 심사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 이 상을 제정하여 주신 심산문학진흥회 이사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분들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수상을 축하하여 주시기 위해 왕림해 주신 내빈 여러 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시업 50여 년 동안 오로지 한 길에만 정진하여도 부족한 처지에, 겸하여 교육자로 봉직하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시 창작에 심혈을 기울여 오지 못한 제 자신을 뒤돌아볼 때, 이 상은 저에게 과분하다고 생각되어 송구스런 마음입니다.

노구에도 불구하고, 젊은 시인 못지않게 여전히 시 창작과 시론 연구에 정진하시는 심산 문덕수 선생님의 후배 문

도로서, 선생님께 존경과 흠모의 정을 느껴 온 터에, 선생님의 존함으로 제정된 상을 받게 되니, 무어라 감격의 말씀을 드릴 지 모르겠습니다.

새롭게 도래한 정보화 시대의 어지러운 환경 속에서, 시 창작의 길이란 참으로 험난한 형극의 길임을 절감하면서, 이 시대에 시 창작의 의미는 과연 무엇이며, 시인이 지켜야 할 시의 위위는 어떠한지, 이를 깨달아 실천해 나가는 일이 저에게 주어진 막중한 사명임을 느낍니다.

아울러, 매우 둔탁한 도구인 언어로 시를 창작한다는 것이 참으로 힘든 일이지만, 이는 현실 속에 함몰되기 쉬운 우매함을 깨쳐 나가는 값지고 보람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과 자연의 숨은 아르케를 찾아내어 빛나는 시를 창작하려면, 제 자신이 지니고 있는 편견과 아집이나 안온한 관습을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이 순간 절감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상은 저에게 게으르지 말고 앞으로 더욱 정진하라는 격려의 채찍이라 믿으면서, 앞으로 심산 문덕수 선생님의 빛나는 문학적 업적에 누를 끼치지 않는 후학이 되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시간을 기하여 저에게 남은 삶을 오직 시업에 정진, 정진하리라 다짐합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빛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2월 7일

❖ 수상자 약력

수상자 신규호(申奎浩)

- 1938년 서울 출생
- 충남대천중학교, 경남진해고등학교 졸업
- 홍익대국문과, 동국대국문과, 단국대대학원 졸업(문학박사)
- 한양대, 인천대 강사 역임
- 성결대국문과 교수, 동 부총장 역임. (현)명예교수
- 『현대문학』으로 등단(1966-72)
- 한국시인협회 중앙위원, 심의위원 역임
- 한국현대시인협회 지도위원, 이사장 역임. (현)고문
- 한국시문학아카데미 학장(2006-2014) 역임
- 2000년 1월부터 한국좋은시공연문학회 창립. (현)회장
- 시집 : 『입추이후』 등 9권
- 저서 : 『한국현대시연구』 등 4권
- 편저 : 『사론의 들꽃』 등 3권
- 수상 : 펜문학상, 창조문예상, 동국문학상, 기독교문학상, 후광문학상 등

❖ 제1회 문덕수문학상 심사기

문덕수문학상은 재단법인 심산문학진흥회에서 문덕수 시인의 문학적 업적을 기리기 위해 한국 시문학의 발전에 기여한 분께 드리는 문학상이다.

제1회 <문덕수문학상> 심사위원들은 예선을 거친 작품을 두고 논의한 끝에 심사위원 전원 합의로, 신규호(申奎浩) 시인의 시집 『거대한 우울』을 제1회 <문덕수문학상> 수상작품으로 결정하였다.

신 시인은 1966년 『현대문학』으로 등단한 이래 성결대 교수, 부총장, 한국현대시인협회 이사장, 한국시문학아카데미 학장, 한국 좋은시 공연문학회 창립 회장, 현재 성결대 명예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중진 시인이다.

신 시인은 초기부터 “형이상학적 시론이나 신비평에 매료되어”(『나의 시 쓰기』에서)의 미시, 관념시, 즉물시 일변도의 우리 시에 컨시트, 패러독스, 아이러니 등으로 압축된 생략, 밀도 있는 이미지로 우리 시에 새움을 입힌 시인이다. 이번 수상작품에서도 정서 유발적인 표현보다 분석적으로 접근한 기상의 기법, 역설의 구조 속에서 얻어진 시적 성취도는, 신 시인의 시에 한층 더 깊이와 성숙미를 돋보이게 한다. 이 점에 우리는 주목하였다.

특히 이 상을 만든 문덕수 시인은 초기부터 일관되게 모더니즘 시, 시론, 문학평론으로 우리의 시사(詩史)를 갱신하였다. 그와 궤도를 같이 한 신 시인의 제1회 <문덕수문학상> 수상은, 물이 흐르는 것처럼 순리를 따른 것 같아 매우 기쁘다. 그것은 <문덕수문학상>이 우리 문단의 권위 있는 문학상으로 첫걸음을 내딛었기 때문이다.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심사위원 함동선(위원장)·이성교·허영자·문효치·이승하

❖ 낭송 / 수상자의 시

존재의 이유

허열 낭송

한 밤 자고 나면 자라는
분신들이 있다
몸이 밀어내는 수염을 바라보며
한 생애의 길이를 생각한다

거실의 난초가
가늘고 긴 잎을 쪽 번으며
가지개를 권다
난초가 몸 밖으로 제 시간을 밀어내며
몸이 감당 못할 낡은 잎 하나를
떨군다

태어날 때 가지고 온
목숨의 양은 얼마일까
난초의 목숨은 난초의 앞으로
나의 시간은 나의 수염으로 자라나
아침마다 깎이고 꺾여
어디론가 사라진다

깎이지 않는 것을 위하여 나는
죽지 않는 시를 쓰고
난초는 보이지 않는 향기를
조금씩, 아주 조금씩 내뿜는다
그것이 존재의 이유라는 듯

구름과 놀고 싶다

최지하 낭송

가을 하늘의 흰 구름을 보면
불러서 함께 놀고 싶다

목마 타듯 훌쩍 올라타고
서넛으로 가보고

가다가 심심하면
양떼구름이나 만들다가

밤이 되면 별을 불러
동방박사의 점이나 보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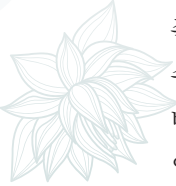
아주 가난하고 누추한
마구간 찾아 기웃거리며

누가 또 태어났는지
알아보고 싶다, 찾아보고 싶다

◆ 낭송 / 수상자의 시

바람꽃

합송 : 고경수·오상희



풍도에 가서 바람꽃으로 피어나고 싶다
쪽빛 바다의 잔잔한 파도를 타고
수평선에서 불어오는 바람 맞으며
바람꽃으로 피어 살면
연모(戀慕)의 그림자라도 찾을 수 있을까
바라던 바람 헛되이 사라졌는데
풍도의 바람꽃으로 피어날 수 있을까

때로는 정면으로 불어와 얼굴을 때리고
등 뒤에서 밀어대는 거친 바람 느끼며
개밥바라기 뜨는 쪽으로 내달리던 날의 고통,
풍도에는 아무도 모르게
잡초 속에서 바람꽃 송이송이
얼굴을 내밀고 피어나는데

손 내밀어 잡을 수 있는 거리쯤에서
갯내음 맡으며 꽃으로 피어 살다가
바람처럼 사라진다 한들 어떠랴

연륜이 짙어지다 시들해지면 피는 꽃
바람꽃은 바람에 흔들리며 피어나고
풍도에 가서 나도 흔들리며 바람으로 피어나는
한 송이 꽃이 되고 싶다